

美·이라크 전쟁의 군사적 특징 분석

박 헌 옥*

목 차

I. 서 론

II. 이라크 전쟁의 배경

1. 미국의 反테러리즘
2. 미국의 新군사전략
3. 미국의 패권추구전략

III. 이라크 전쟁의 양상

1. 합법전쟁 또는 위법적 침략전쟁
2. 속전속결의 국지전쟁

IV. 이라크 전쟁의 특징

1. 군사전략적 특징
2. 군사전술적 특징

V. 결 론

* 북한연구소 상임연구위원

I. 서론

본 연구는 2003년 3월, 21세기 첫 지상군을 투입하여 9·11테러에 대한 응징 보복차원에서 치른 미국의 對이라크 전쟁이 한반도에서 북핵위기 고조, 반전반미(反戰反美) 분위기 확산, 주한미군 역할변경, 국군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안보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면서 전쟁의 배경과 양상, 그리고 군사작전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3년 하반기 한반도 주변 정세와 안보·통일 환경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 포기하지 않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그리고 한국사회의 다양하고 혼란한 대북 인식 등으로 불안정성(unsteadiness)과 불확실성(uncertainty)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대 전환기적 상황을 맞고 있다.

국제질서는 기원전(B.C)과 기원후(A.D)의 구분처럼 9·11테러 사건을 기점으로 '테러 이전'(B.T: Before Terror)과 '테러 이후'(A.T: After Terror)로 구분해야할 만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과거 이데올로기 중심의 평가르기는 '테러 및 테러 지원세력'과 '反테러 세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냉전적 사고 탈피'와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는 논리가 만연하고 '반전·평화' '반미·자주'의 목소리가 드높아지며, '민족공조'의 기치아래 '한미긴장' '남남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전후세대가 전 국민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2,600만 명의 네티즌, 그리고 2002 월드컵 응원, 촛불시위, 대통령선거 등을 치르면서 스스로 사회변혁의 주역임을 자처하고 나선 인구

42.5%의 'P세대'¹⁾ 등장 등은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안보·통일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따라 제2장에서는 이라크 전쟁의 배경을 미국의 반테러리즘, 新군사정책, 패권추구 전략 등으로 살펴본 다음, 제3장에서는 이라크 전쟁의 양상을 합법전쟁 또는 불법침략전쟁, 속전속결의 국지전쟁 개념 등으로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이라크 전쟁의 특징을 군사전략적 측면과 전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결론으로 이라크 전쟁이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하겠다.

II. 이라크 전쟁의 배경

1. 미국의 반테러리즘

이라크 전쟁의 직접적인 촉발요인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본토가 공격당한 9·11테러 때문이라고 하겠다. 테러(terror)는 상대를 위협하고 겁을 주어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의사를 관철하는 투쟁수단을 뜻하며, 위협·폭력·살상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하는 전술이다. 테러리즘(terrorism)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공포 수단을 이용하는 주의나 정책을 말하고, 이는 '조직적 행동, 뚜렷한 목표, 비합법적 폭력사용, 직접 희생자보다 포괄적 공격대상에 대한 심리적 공포심 유발' 등

1) 'P세대'란 국민 42.5%를 차지하는 17~39세까지의 신세대로서,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on), 열정(Passion)과 잠재력(Potential Power)을 바탕으로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shifter)를 선도하는 세대들을 말한다. 한국일보, 2003. 6. 8일자.

의 특성을 지닌다.

9·11이후 등장한 이른바 '뉴 테러리즘'(New Terrorism)은 첫째, 테러범의 신분이 불명확한 개인, 조직, 정권, 국가 모두가 포함된다는 것, 둘째, 테러 목적이 분명치 않으며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도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셋째, 테러 대상의 무차별성으로서 불특정다수가 '도매금 죽음'(wholesale death)을 할 수 있다는 것, 넷째, 테러 수단의 무제한성으로서 화생방, 핵, 고성능폭발 무기(CBRNE: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Enhanced high explosive) 모두가 포함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첫 해인 2001년 1월, 8년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미국 공화당 부시 행정부는 불과 출범 8개월만에 19명의 자살 특공대에 의한 전대미문의 9·11테러 사건이 발생하여 3,000여 명의 인명손실을 입었다. 이는 탈냉전이후 미국 중심(Pax Americana)의 新세계 질서 구축을 모색하던 초강대국(super power) 미국에게 정치·군사·경제의 상징적 목표물들을 공격함으로써 이라크 전쟁의 직접적인 명분이 되었다.

9·11테러 당일 밤, 부시 미국 대통령은 對국민 연설을 통해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즉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자유와 기회의 빛이어서 공격의 목표가 됐습니다. ...미국과 우리의 친구, 맹방들은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공조할 것입니다."²⁾라고 하여 반인륜적인 테러에 단호히 맞서 응징할 것을 선언했다. 따라서 테러지원국과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분류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은 反테러리즘의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한국일보 2001. 9. 11일자.

2. 미국의 新군사전략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이 크게 달라졌다. 부시 행정부의 국방전략 목표는 2001년 '4년주기 국방태세점검'(QDR)에서 지적했듯이 우방에게 확신을 주고(assure), 장래 군사충돌을 저지하며(dissuade), 미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과 강제를 억제하고(deter), 만일 억지가 실패할 경우 적을 결정적으로 패퇴(defeat) 시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군 변혁(transformation)이 요구되었다. 럽스펠드 미 국방부장관은 군 변혁 6대 목표로, 첫째 핵심 작전기지(미 본토 포함) 방어,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파괴, 둘째 미 군사력의 접근 및 이용을 거부하는 환경에 대한 장거리 전력투사 능력 확보, 셋째 지속적인 감시, 추적, 신속대응 능력을 통해 적대세력의 은신 거부, 넷째 정보기술과 네트워크 중심 개념을 활용하여 합동작전 능력 배양, 다섯째 정보체계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 여섯째 우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확보하고 우주시설을 방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³⁾

9·11테러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조차도 작은 테러집단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에 대한 위협이 현실적 안보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과거 소극적인 非확산(non-proliferation) 전략에서 적극적인 反확산(counter-proliferation) 전략으로의 전환을 피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

3) Foreign Affairs, 2002. 5월호.

업식 연설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을 과거의 억지와 봉쇄 위주에서 적극적 선제공격, 예방적 개입, 핵무기 사용 불사, 그리고 불량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권교체(regime change) 등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외교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한바 있다.⁴⁾

이로써 1948년 트루만 독트린으로 불리던 '억지력'(deterrence)과 '봉쇄'(containment) 위주의 방어전략은 2002년 반테러 전쟁에 대비한 '선제공격'(preemptive action) 중심의 '부시 독트린'으로 바뀐 것이다. 무려 54년만에 변화된 미국의 新군사전략은 한마디로 말해 테러세력에는 과거와 같은 억지력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선제공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군사전략 변화는 한반도 안보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미국의 패권추구전략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사담 후세인 정권교체, 석유자원확보, 중동평화 구축 외에도 新세계질서 구축에서 주도권(hegemony)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의 hegemony는 한 집단이나 국가가 문화가 다른 집단·국가·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뜻하는데 지배권, 맹주권, 패권(霸權)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 용어는 '정치적 지배'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근대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hegemony는 '하나의 강대국이 그 체제내의 국가들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상황'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국제관계를 관리할 규칙과 제도를 형성하고 지배하는 국가를 '헤게모니 국가'로 보고 있다.⁵⁾

4) <http://www.dapis.go.kr/jour/200210/j39.html>

또한 헤게모니 안정이론(hegemony stability theory)에 의하면 강대국이 자국이익에 부합하는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하지만, 국제정치의 현실은 이를 쉽게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질서는 전형적으로 단일 지배적 국가, 즉 헤게모니 국가에 의해 창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헤게모니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미국 역사를 통한 세계전략은 모순과 위선적인 부분도 있고, 역동성과 창의성, 그리고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이익⁶⁾과 목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권, 영토, 국민에 대한 보호를 최상위 가치로 하며, 정치, 외교적 수단으로 국익의 상충현상을 해소하지 못할 때는 전쟁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지켜야할 사활적 가치(vital interest)⁷⁾로 여겨 온 것이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 어떤 분쟁지역이라도 즉각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일 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48%를 차지하고 첨단 정보산업을 기반으로 세계 무기시장의 3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국가이익을 위해 hegemony 추구 노력을 지속

5)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29.

6) 미국의 국가이익은 ①미국의 주권, 영토, 국민에 대한 보호, ②적대적 지역연합이나 패권자의 출현 예방, ③주요 시장, 에너지 공급원, 전략적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확보, ④미국의 동맹이나 우방국에 대한 침략 억제와 필요시 격퇴, ⑤주요 통신망과 해로, 육로, 항공로, 우주에 대한 자유확보 등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William S. Cohen, Secretary of Defense,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May, 1977), pp.2~3.

7) 국가이익을 우선 순위에 따라 존망의 이익(survival interest), 사활적 또는 핵심적 이익(vital interest), 중요한 이익(major interest), 지엽적 이익(peripheral interest)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외교정책의 현실과 이상』, (법문사, 1995), pp.31~32.

할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마찰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위상은 군사적 Hard Power가 비군사적 Soft Power를 압도하는 듯한 인상은 지울 수 없다. 특히 '위험한 세력'은 미리 공격해 제거해야 한다는 新보수주의자(neocon)⁸⁾들의 강경한 입장이 이라크 전쟁을 유발하는데 기여했다.

2003년 5월, 이라크에서 군사작전이 종료되고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이라크에서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는 미국 행정부의 명분은 증거제시 불충분으로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명분없는 침략전쟁'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은 10월 3일,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이 권좌에서 제거돼 세계가 더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대량파괴무기 수색 팀인 '이라크 서베이그룹'(ISG)의 데이비드 케이 단장이 의회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는 사담 정권이 '중대한 위협'이었으며, '이라크에서 대량파괴무기들을 찾지 못했으나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이 비밀리에 대량파괴무기들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 보고서는 후세인 정권이 비밀 생물 실험실 네트워크와 치명적인 병원균인 보툴리눔의 살아있는 변종의 보유, 교묘한

8) 9·11테러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은 강경 신보수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컸다. '네오콘'(neocon)으로 불리는 이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호전적 개입정책도 피하지 않는다. 세계여론과 국제사회의 협의를 중요시했던 1990년대 미국의 정책기조와는 사뭇 다르다. 행정부와 비정부기구 곳곳에 포진한 네오콘 중 두드러진 인물로는 ①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첨단무기와 소규모 속도전을 강조하는 '럼즈펠드 독트린'의 창시자, 이라크전의 승리로 이 독트린의 유효성을 인정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1975년 미 역사상 최연소 국방장관을 했고 현재는 최고령 국방장관이다. ②딕 체니 부통령 = 1969년 현 럼즈펠드 장관의 참모로 공직을 시작해 그와 오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부 내 네오콘 간의 인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존 볼턴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차관=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 북한이 먼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④윌리엄 크리스톨 = '네오콘의 뉴스'로 불리는 주간지 '워클리 스탠더드'의 편집장. 동아일보, 2003, 9. 9일자.

은닉 노력, 금지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신형 디자인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Ⅲ. 이라크 전쟁의 양상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만큼 지구상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 원인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다. 따라서 전쟁의 관점은 가치관과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전쟁의 양상은 전쟁목표, 전략 전술, 그리고 무기체계의 발달에 따라 변모해왔다. 특히 첨단과학장비 및 전자·정보전으로 대변되는 현대전의 양상은 급변을 거듭하고 있다.⁹⁾

1. 합법전쟁 또는 위법적 침략전쟁

이라크전쟁을 두고 미국은 합법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라크와 아랍국가들은 명분 없는 침략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란은 쉽게 끝이 날 문제가 아니다.

우선 미국이 주장한 이라크전쟁의 국제법상 근거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3년 3월 15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밝힌바와 같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과거 쿠르드족을 독가스로 대량 살상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것이 국제법상 '개전의 근거'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인도적 무력 간섭'(Humanitarian Arms

9) 현대전의 양상에 대해서는 1950년 6·25전쟁에서부터 아프카니스탄 전쟁까지를 분석한 박헌욱, '현대전 양상에 관한 특징분석', 『軍史』, 제46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를 참조할 것.

Intervention)이란 개념 때문이다.

1999년 코소보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세르비아의 인종청소에 맞서 유엔 결의 없이 군사행동에 나섰다. 인종청소는 누가 보아도 '너무나 명확한 비인도적 행위'였기에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다.

이라크 공격의 또 다른 미국 측 명분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¹⁰⁾로 되어있지만 예방적 차원의 선제공격까지 정당방위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주장이다. 즉 과학무기가 갈수록 발달하고, 공격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적이 공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격한다는 것은 이미 늦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라크와 테러 조직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확증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한 유엔 결의 678호와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휴전 조건으로 규정한 687호를 들고 있다. 2002년 말에 채택된 유엔 결의 1441호로 기존 이라크 관련 결의안의 지속성과 효력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견해가 있으나 미국의 일부 학자는 '이라크가 휴전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 678호에 의거, 여전히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¹⁾

결국 이라크 전쟁의 합법성 여부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는 국내법이 우선이고 국제사회는 정당성의 논리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보

10) 유엔헌장 제51조에서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안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권리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1990), p.785.

11) 루스 웨지우드 예일대 교수가 대표적 인물이다. 중앙일보, 2003. 3. 16일자.

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라크 전쟁이 적법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권위로 이를 판정해줄 기관도 없고 미국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번 전쟁의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는 유엔 안보리를 들 수 있으나, 미국과 영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불법전쟁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은 현실적으로 이번 전쟁의 불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¹²⁾

2. 속전속결(速戰速決)의 국지전쟁

전쟁기간의 장·단기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라크 전쟁은 분명히 단기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을 군사적 승리로 이끌어 낸 주역인 토미 프랭크스 미 중부군 사령관은 “이라크 전쟁이 당초에는 약 120일 정도로 예상했으나 단 3주만에 끝나 나도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전광석화 같은 작전의 승리로인으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획기적인 전쟁 시나리오, 부시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후세인 친위대의 허를 찌른 대담한 전격작전 등을 들었다.¹³⁾

프랭크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에서 내놓은 초기 이라크전 구상은 지상군 50만 명을 동원한 장기전이었다. 그러나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이를 백지화하고 소규모 병력을 바탕으로 한 단기전 전략을 요구했다. 이는 물론 전쟁의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을 이라크 전지역 점령이나 이라크 군 괴멸이 아니라, 사담 후세인 '정권교

12) 연합뉴스, 2003. 4. 10일자.

13) 중앙일보, 2003. 5. 13일자.

체'(regime change)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전계획도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첨단 무기·정보체계 아래 긴밀히 협력하는 유기적인 작전체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한편 91년 걸프 전쟁의 경우 미국은 영국, 프랑스 등 서방과 아랍·아시아권 등 33개국으로 구성된 68만 명의 다국적군을 편성, 쿠웨이트, 이라크,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지역에서 전쟁을 치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영·호주 등 앵글로색슨 국가를 중심으로 한 '그들만의 전쟁'을 치렀으며 동원병력 규모도 1차전 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만 명 선이었고 전쟁지역도 이라크에 국한했기 때문에 국지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전쟁의 명분과 절차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선제공격 논리와 불분명한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 국지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IV. 이라크 전쟁의 특징

1. 군사전략적 특징

1) 전격전(電擊戰)

전격전(lightning war)이란 신속한 기동과 기습으로 일거에 적진을 돌파하는 기동작전을 말한다. 공군의 화력지원 하에 전차가 주축이 된 기계화부대로 적의 제1선을 급속히 돌파하여 후방 깊숙이 진격함으로써 적을 분리시키고 양단된 적 부대는 후속하는 보병부대로 하여금 각개 격파하도록 하는 전법이다. 역사적으로는 독일군

이 1939년 폴란드 침공시 처음으로 시도한바 있다.

전격전은 엄청난 속도를 이용한 전과확대 전술로 그 속도에 작전의 승패가 달려있으며 전격전술의 목표는 적의 시간적, 공간적, 정신적 능력을 제거하는데 있다. 즉 저항의지 상실 유도, 제2전선 구축 불가, 병력집중의 시간 제거 등을 전술적 목표로 삼는다.¹⁴⁾

이라크 전쟁은 3월 20일에 개전하여 4월 9일 사담 후세인 정권의 심장부인 수도 바그다드를 함락시키기까지 21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4월 3일 연합군이 바그다드 서남부 교외의 사담 국제공항에 접근한 지 7일 만이다. 3주일 만에 연합군이 돌파한 전장의 중심은 이라크 최남단 페르시아만과 쿠웨이트에서 500km가 넘는다.

전쟁 전문가들은 이라크 전쟁을 전격전이라고 분류하는데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다.¹⁵⁾ 미군은 전면적인 제공권과 정보력 우위를 지상군과 결합시켰으며 외과수술식 정밀타격 능력을 지상군의 신속한 기동과 결합시켰다. 대규모 지상군의 진격이 공중우위, 정보력 우위와 혼연일체로 전개된 금번 이라크 전쟁은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은 전격전이었다. 미군은 지상군 공격에 앞서 이라크의 지휘, 명령,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체계(C4I)와 대공방어(對空防禦) 능력을 무력화 시켰다. 이라크군의 조직적인 대응능력을 마비시키고 전투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연합군은 가공할 화력으로 바그다드를 대대적으로 공습하는 대신 F-117 스텔스 전투기 2대와 크루즈 미사일 40발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비밀병커를 폭격하는 것으로 첫 공격을 시작했다. '후세인 참수공격'(斬首攻撃, Decapitation Attack)이라고 명명된 이 폭

14) <http://nazis.x-y.net/blit.htm>

15) 군사전문기자 피터 스피겔은 4월 9일, "2차대전 이후 현대전에서 이번 같은 전격전, 즉 블리츠크리크(Blitzkrieg)는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2003. 4. 9일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번 전쟁을 "21세기 전격전의 단면을 보여준 혁명적 전쟁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격은 전쟁사상 유례가 없는 전격작전이었다. 클라우제비츠로 대표되는 서양의 전쟁 철학은 “전쟁이란 적의 저항 의지를 꺾음으로써 승리하는 것이며, 적의 의지를 꺾으려면 적의 군사력을 파멸시켜야 한다”는 것을 실현한 것이다.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은 후세인 정권이 보유한 군사력의 핵심인 공화국수비대를 집중 공격했다. 그러나 종전 후 후세인 정권이 여전히 견재하고, 오히려 더욱 강력한 독재체제를 구축해가자 미국은 전략을 바꿨다. 독재국가와 전쟁할 경우엔 군사력 대신 그 나라의 지도자를 개전 초부터 집중 공격해야 한다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전격전을 위해 미군이 이라크군의 전쟁지휘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투입된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개전 후 4월 1일까지 12일간 미군 전투기의 출격회수는 무려 2만5,000회에 달했고 재급유기가 제공한 항공연료는 2,960만 갤런이었으며, 각종 전투기가 소모한 폭탄은 3만 3,000톤에 이르렀다. 따라서 미군의 새로운 전쟁모델은 거대한 지상·공중 보급능력을 전제로 하며, 페르시아 만과 지중해에 포진한 6개의 항모전단과 보급선단은 미군의 새로운 전쟁모델이 세계 어디서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입체적인 전격전 체제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미국의 군사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2) 특수전(特殊戰)

특수전(special warfare)은 특별히 훈련된 요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유격전·심리전 등이 포함된 정치·군사 및 준군사 활동으로서 비정규전이라고도 한다. 특수전이라는 용어는 미국 케네디 행정부 시대의 유연반응전략(strategy of flexible response)에서 전면전쟁 및 국지전쟁과 함께, 전쟁의 한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그 개념은

당시 인도차이나(특히 베트남), 아프리카(콩고), 중남미(쿠바) 등지에서 군인이나 주민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던 게릴라전, 대(對) 게릴라전, 심리전, 혁명·정치공작, 정보획득공작 등의 특수활동을 가리켰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특별히 훈련되고 장비된 특수전부대(special forces)들을 편성, 보유하고 있다. 특수전부대가 수행하는 작전을 특수전부대작전(special operation) 또는 비정규전(unconventional warfare)이라는 용어로 일반화되고 있다.¹⁶⁾

이번 전쟁은 특수병력을 활용해 이라크 전역에서 은밀한 비정규전을 펼쳤는데, 특히 미 특수부대와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이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은밀한 작전으로 이라크군을 무력화시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수요원들은 유정(油井) 관리자들을 포섭하여 방화를 막았으며 해군 특수부대 실(SEAL)은 전쟁 전날 밤 어둠을 틈타 중요 석유 플랫폼을 장악, 이라크군의 폭파를 저지했다.

또 걸프전 당시에는 바그다드 내 특정 목표물을 크루즈 미사일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사흘의 기간이 필요했으나, 이번에는 지상 특수요원으로부터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목표물을 폭격하는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45분에 불과 했다. 이라크군의 투항을 유도한 심리전도 특수부대원들의 몫이었다. 미군들이 뿌린 '후세인 정권의 운명이 당신의 운명이 되게 하지 말라'고 쓰인 광고 전단을 이라크 군들이 흔들며 투항했으며 이를 두고 미영 특수부대들은 '매추리 사냥'이라고 했다.¹⁷⁾

CIA 공작국 산하 특수작전단(SOG)은 이라크 전쟁에서 '프로

16) <http://100.empas.com/entry.html/?i=156651&v=&Ad=photorental>

17) 연합뉴스, 2003. 4. 14일자.

중의 프로' '실존하는 007' 등으로 불리워진다. 이런 찬사에 걸맞게 이번 전쟁에서도 SOG는 신출귀몰한 활동을 전개, 승전을 이끄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쟁 발발 2개월여 전부터 SOG는 이미 덴마크나 아일랜드 등 유럽의 비즈니스맨 등으로 가장해 수도 바그다드, 바스라, 모술 등 주요 전략목표지에 잠입, 지휘·통제·통신 및 정보(C3I) 시설 등 전쟁 수행에 대너지능을 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들은 사담 후세인 정권에 반감을 품은 정부 관리, 예비역 장성, 정보기관원들과의 비밀접촉을 통해 생화학무기나 스커드미사일과 같은 대량파괴무기 은닉장소에 대한 정보수집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SOG 요원들은 북부 쿠르드족 지도자들에게 접근, 전쟁 발발시 쿠르드 민병대 조직의 원활한 동원과 이라크군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투항을 유도했다. 이러한 일련의 비밀공작을 통해 연합군이 이라크군의 주요 거점과 지상목표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화력을 조정했다.

조지 테넷 미 CIA 국장은 정규군과 특수부대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각종 비밀공작을 위해서는 SOG를 재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1997년 행정부, 의회 및 군부를 상대로 하는 지루한 설득작업 끝에 재가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이 비밀조직에 들어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5년 이상 군 경력은 물론 확실한 신원과 함께 탁월한 체력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이다. 요원 대부분은 그린베레, 델타포스, 해군특전단 산하 특수전연구개발단(DevGru), 포스리컨(해병대 특수수색대)등 최정예특수부대를 거친 역전의 용사들이다.

군 특수부대와 이들의 운용상의 차이점은 재량권이다. 즉 군 특수부대 요원의 경우 상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SOG 요원

들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융통성 있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특전사(SOCOM)를 중심으로 특수부대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목표지역에 대한 정보수집, 목표타격 등 '고유의 영역'을 SOG 요원들에게 넘겨야 할뿐 아니라, SOG 자체적으로 쾌속정은 물론이고 잠수정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상공작부와 소형 제트여객기와 수송기를 보유하고 명령이 하달되면 2시간이내 출동이 가능한 공중공작부를 운영하고 있다.

3) 최첨단 신무기(新武器) 동원

이번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디지털전쟁' '스마트전쟁'으로 불릴 만큼 정밀도와 파괴력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된 최첨단 신무기가 동원됐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JDAM이다. 이 폭탄은 내장컴퓨터를 통해 지구위치시스템(GPS)으로 목표물의 좌표를 인식하고 자체 비행날개를 이용해 최대 27km까지 날아가 목표물의 위치를 불과 3m의 오차범위 내에서 명중시키는 가공할만한 위력을 발휘했다. 전천후 폭격이 가능한 이 폭탄은 크루즈미사일보다 50분의1 수준인 2만7천 달러의 저렴한 가격이므로 앞으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무기로는 전자폭탄(e-bomb)으로 알려진 HPM이다. 이것은 20억W(와트)의 강력한 전력을 순간적으로 분출, 반경 330m 내의 지휘, 통제용 컴퓨터 등 전자장비를 파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무인항공기(UAV)도 한몫을 했다. 특히 공군과 중앙정보국(CIA)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레데터기의 경우 목표물 상공을 장시간 비행하면서 실시간 정보제공과 함께 장착한 미사일로 원거리에서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성능이 개량된 패트리엇-3 요격미사일과 콘크리트 6m 두께를 관통할 수 있는 레이저유도폭탄 GBU-28도 각광을 받았다.

보병사단도 첨단 장비로 무장했는데, 이라크 전투에 투입된 미 보병4사단 장병들에게는 컴퓨터 등 최첨단 디지털 장비를 지급했다. 사단보유 탱크, 브래들리 장갑차, 험비 지프차, 헬리콥터 등에 펜티엄 CPU로 구동되는 애플리크(Applique) 컴퓨터를 장착, 일반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해 무선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8억 달러를 들여 이같은 인트라넷 시스템을 개발한 미 국방부는 보병 4사단의 3만여 장교와 사병들이 GPS에 의해 촬영된 최신 전투현장 사진들을 보면서 작전을 펴도록 한 것이다.

또한 E-Mail 시스템과 인스턴트 메신저 시스템 기능을 추가, 작전시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토록 했다. 위성을 통해 지도와 각종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아 작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컨대, 전투 현장에 나가 있는 탱크가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적군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공격 명령을 컴퓨터에 올리면, 이 메시지를 받은 헬기가 곧바로 요격하는 식이다. 전투를 컴퓨터 게임하듯 한 것이다.

2. 군사전술적 특징

1) 공지(空地) 입체작전

하늘에서는 첩보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호크아이 첩보기, 프레데터 무인정찰기(UAV)가 이라크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통신을 감청했다. 특히 호크아이와 프레데터는 이라크군의 진지 및 이동 상황을 영상으로 만들어 현지 지휘관들의 노트북 컴퓨터로 전송해 주었다.

지상 정보는 1,000명 이상이 투입된 특수부대가 주로 맡았다. CIA와 델타포스, 육군의 레인저 부대, 해군의 실(SEAL) 부대는

공중정보체계가 감지하지 못한 전장 정보를 획득하여 적기(適期)에 전파했으며 지상군의 선봉에서는 전폭기의 원거리 공습, A-10 선더볼트기와 아파치 롱보 헬기의 근접지원, 포병의 후방 포격 등이 동원됐다.

지상군의 작전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의 도시 포위공격전이다. 바그다드를 공략함에 있어서 미군은 전통적인 원형포위와 소모전 전술을 완전히 탈피한 대신 시내의 거점을 공격·확보하고,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지도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전술을 썼다. 시가전에서는 M1A2 에이브럼스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 등 기갑부대를 헬기 강습부대 및 보병과 결합하는 새로운 보전합동(步戰合同) 기동으로 전술적 혁명을 이뤄낸 것이다. 아파치 롱보 헬기와 A-10 선더볼트기의 근접 공중지원을 받으며 이뤄진 시가지 진격은 미군의 피해를 극소화했다.

20세기 이래 전쟁사에서 도시를 평지로 만들거나 포위, 고사시키지 않고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장악한 전례는 없다. 바그다드 공략전에서 미군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당초의 계획을 달성했다. 주목할 것은 500km 이상의 중심 돌파 속에서도 선봉 부대인 미 제3기계화보병사단과 해병대 제1원정대는 긴 보급선을 전혀 교란 당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군이 바그다드 주변에 포진하고 있던 공화국수비대 6개 사단의 위협 속에서도 긴 보급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전술개념에서 보면 기적에 가깝다. 이것은 미군의 압도적 우세와 함께 21세기 첨단기술전쟁에서 약자가 처한 딜레마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정보력과 기술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21세기 전쟁에서 1등과 2등의 격차는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벌어져 2등이 선택할 수 있는 전술상 여지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21세기 전장에서 2등이 설자리가 없다는 것은 연합군과 이라크

군의 전력비교에서도 확인된다. 연합군 총병력은 미군 25만 5,000명과 영국군 4만 5,000명 등 30만 명을 약간 넘어선 반면, 이라크 병력은 38만 9,000명으로 절대규모에서 앞섰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라크군의 전차 2,600대는 맥없이 무너졌고, 각종 전투기 316대와 헬기 375대는 단 한 번도 날아보지 못했다. 1,100기에 달했던 대공미사일은 개전 초기에 파괴되거나 레이더 무력화로 무용지물이 됐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승전기회를 잡게된 것은 4월 4일, 제3기계화보병사단에 의한 바그다드 외곽의 사담 국제공항 점령 작전이었다. 이날 미군은 바그다드 외곽에 있던 공화국수비대 4개 사단 생존병력의 바그다드 합류를 차단하기 위해 개전 이래 최대규모의 공지합동 공격을 퍼부었다. 이날 하루 동안 1,850회의 공중 출격이 이뤄져 700회의 지상공격이 진행됐으며 이중 80%는 바그다드로 들어오려는 공화국수비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400회의 공중 급유, 350회의 공중보급, 100회의 각종 공중정찰 임무가 수행됐다. 이 같은 공중지원을 바탕으로 제3보병사단은 사담 국제공항 장악과 바그다드 공략전을 준비할 수 있었다. 결국 제공권의 조기확보와 방공망의 무력화, 공지 입체작전이 전승의 요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2) 기습적 시가지(市街地) 작전

미군의 전격적인 바그다드 중심부 진입은 이라크군의 허를 찌르는 기습적 시가지 작전이었다. 4월 7일 오전, 바그다드 남부 외곽에서 출발한 보병과 기갑부대가 일상적인 정찰 수준을 넘어 불과 한두 시간만에 바그다드 시내로 깊숙이 들어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연합군은 6일 전황 브리핑에서 '바그다드 시내로 당장 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외신들

도 향후 이라크전 전망에서 단기간 내 대규모 병력의 바그다드 진입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군 관계자들도 당초 전면적인 바그다드 시가전은 이라크 민간인뿐 아니라 연합군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도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외신 등에 흘렸다. 무리하게 바그다드의 조기 함락을 꾀하다가는 오히려 이라크군의 반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 때문에 4월 5일, 바그다드 시내 외곽을 연합군 탱크와 장갑차 등 기갑차량 40여 대가 ‘치고 빠지기’(hit and run)식으로 질주하는 무력시위를 벌인 뒤 미군은 ‘느슨한 경계’(loose cordon)라는 표현으로 향후 바그다드 공략 개념을 설명했다.

후세인 대통령궁에 미국 성조기를 내걸었다고 미 폭스TV는 보도했지만 국방부는 ‘이번 공격은 바그다드 대결전이 아니라, 연합군이 원하면 언제든 어디에서나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무력시위’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후세인 정권의 상징인 대통령궁이 연합군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민심이 크게 요동하는 등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 바그다드 심장부에서 이뤄진 연합군의 선전전은 지금까지 동원한 그 어떤 심리전술보다 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괴력이 컸으며 이로서 탈영병 속출과 약탈 등으로 전시 공황(panic)과 무정부(anomie) 상태가 연출되었다.¹⁸⁾

결국 이라크 전쟁은 전술적으로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후세인의 오판과 미국이 초동단계에서부터 바그다드에 대한 공습을 통한 지도부 무력화작전을 전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전투 과정에서 적의

18) 중앙일보 2003. 4. 7일자.

허를 찌른 양동작전으로 정예 공화국수비대 병력의 분산을 유도한 것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유엔을 통해 미영 연합군의 침공을 방지하는데 주력했던 이라크는 정작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이렇다할 만한 전략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라크는 1차 걸프전 이후 전력이 절반 이하로 약화된 상태에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데다 개전초부터 계속된 연합군의 공습으로 군사령부와 통신시설 등 C3I 기능이 마비되어 병력 및 장비 동원과 재배치, 병참지원 등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합군 지상병력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확한 작전정보를 바탕으로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을 최대한 이용, 적의 허를 찌르는 대담한 작전에 성공한 것이다.¹⁹⁾

전쟁사 연구자인 제임스 캐러파노는 '전쟁 지휘부가 엄청난 모험을 감행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했다. 낙관론자들도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희생자를 예상했다'며 대규모 유혈사태가 우려됐던 바그다드 시가전을 치르지 않고 전쟁 승리를 일궈낸 것을 이라크 전쟁의 전술적 특징으로 들었다.²⁰⁾

이렇게 보면 이라크전쟁은 특수부대원들이 새로운 스파이기술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한 목표물을 폭격하도록 유도한 것, 이로써 이라크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민간인 희생자를 줄인 것, 도시 전투를 피하고 시민들의 봉기를 유도하는 등의 전략·전술적 성공도 중요한 전승요인이 되었으나, 사담 후세인 24년 독재정권이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라크의 패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준 미국의 전략, 전술이 다른 전쟁에

19) 연합뉴스, 2003. 4. 10일자.

20) 연합뉴스, 2003. 4. 11일자.

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새로운 전쟁모습을 선보인 이라크 전쟁은 앞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지도부 참수작전, 정밀고공폭격 등은 한반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분석한 이라크 전쟁의 군사적 특징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한국안보와 관련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라크 전쟁에서 드러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는 한반도 안보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이 선제공격의 선례를 남긴 것과 정밀 첨단무기를 이용한 지휘부 제거작전 등은 북한에 대해서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對테러 및 대량파괴무기 제거를 위해서는 필요시 유엔의 결의 없이도 동맹국과 더불어 군사작전을 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이라크는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무리 이슬람 종교적 결속과 후세인 정권에 충성을 서약한 공화국 수비대라고 하더라도 첨단무기로 무장된 수퍼 파워 미국을 당할 수가 없었다. 독재국가의 사상무장도 군대의 충성심도 현실적인 힘의 격차 앞에는 무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북한체제에 대해서도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셋째, 군사작전성공이 곧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불과 21일만에 군사작전을 성공해 놓고도 평정작전이 여의치 못해 사상자가 속출하는 등 이라크에게 발목이 잡힌 것은 사전 준비 소홀, 작전부대와 평정기관의 협조 미흡, 그리고 민사작전

(civil affair operation)의 부적절성 때문이라고 하겠다. 치안질서 유지와 생필품 공급, 구호 및 의료지원 등은 군사작전 종료 즉시 이루어져야 현지 주민의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

특히 민족의식, 종교의식, 반서방의식이 강한 이라크에서 조기에 민심을 수습하고 과도행정체제를 거쳐 정권이양까지 이루어지려면 처음부터 이를 의식한 군사작전 진행이 필요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의 이라크 전쟁 성공, 즉 이라크의 패배는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 안보환경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첫째, 이라크 전쟁의 조기 종전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바그다드가 함락된 지 3일 만인 4월 12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양자회담 주장에서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해왔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악의 축' 국가로 분류된 이라크에 대해 미국의 무자비한 군사공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는 '핵억제력 확보' 주장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겠다.

둘째, 주한미군의 진지조정과 역할변경의 명분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즉 이라크 전쟁에서 첨단장비를 이용해 입체전략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미국의 위력을 보고 북한은 핵개발 의욕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한강 이북의 미군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도 판문점 중립국감시위원단 경비문제, 미2사단의 임무기능 일부를 조정하여 '한국방어의 한국주도' 방침을 실현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셋째,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라크의 전후복구와 북부지역 치안유지 활동을 위해 한국

군의 추가 파병을 요청했고 한국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국가이익과 국민여론이 상충될 소지를 안고 있으나 한미 동맹관계의 본질과 국제평화를 위한 당연한 역할이 일부 '반전 평화론자' 및 '반미 자주론자'들의 극렬 반대에 부딪쳐 중대한 정책 결정이 오판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겠다. 파병을 결정하기 위한 정부 현지조사단의 보고를 놓고도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현지상황이 위험하다고 하면 위험하니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위험이 없다고 하면 치안질서가 이미 유지되었는데 왜 추가 파병이 필요한가라고 하면서 반대한다면 무조건 반대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이라크 전쟁은 명분의 문제를 떠나 이미 군사작전이 종료되고 전후처리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파병의 명분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옳지 못한 모습이다. 이는 한미 동맹관계를 해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반전 평화와 반미 자주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남한 내부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심사숙고하여 정책결정을 내려야하고 국민은 정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민주국가의 원리이다.

결국 9·11테러이후 달라진 미국의 군사전략과 이라크 전쟁에서 적용된 기술적 특징과 분야별 교훈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에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